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제2次 中國시찰 訪問團(91·8·18—8·28간)무사귀국~비디오 제작 비칭.

○지난 9·3일 안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가을수매 예정품목 선정및 예상단가 설정등)

▲支部록생회

○지난 7·20 전북지부 관하 록생회를 무주에서 개최.

○지난 7·20 경북지부 관하 록생회를 경산에서 개최.

○지난 7·20 충북지부 관하 록생회를 안단에서 개최.

▲教育協助

○지난 7월26일 경북 울진군 놀촌지도소 주관 교육에 사무국장이 출강 협조·피교육인원 약6백명.

○지난 7월26일 전북 부안군 놀촌지도소 주관 교육에 기획실장이 출강협조·피교육인원 약80명.

○지난 8월20일 전남 장흥군 놀촌지도소 주관 생약세미나에 경기지부장 이응황씨가 출강협조.

中國訪問記 〈연재〉

제공 : 裵 永 斗

(91. 8. 18~ 91. 8. 28)

「前 記」

全面 輸入開放을 전재로 할때 한약재를 生産지도함을 주임무로하는 當協會로서는 漢方業의 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中國大陸의 現住所를 답사하고 見聞을 넓히므로서 將次의 交流對策을 立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豫想下에 90년 8월 제1次 中國시찰 訪問團을 편성 파견한바 있고 今年 8월 2次 訪問團을 編成 昨年과는 코스를 약간 다르게 잡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제국과 인접한 雲南省 昆明市일대의 藥用作物 栽培시험장과 이를 加工하는 藥材公司(藥材加工會社) 現場을 見學코스로 편입시켜 訪問하였다。多幸히도 本人은 直接 耕作者는 아니지만 이번과 같은 機會를 얻게되어 一生에 두번다시없는 광활한 大陸 中國漢方業의 本거지를 답사하게 되었다는 點에서 協會長과 다이나스티旅行社측의 배려에 깊이 感謝를 드리고자 한다。

會員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生覺되는것은 訪問기간이 10여일에 不過하나지 않는다는 点에서 사전 諒解를 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있을 시찰訪問계획에는 可及的 重點地域에 重點的연구팀을 훈할편성하여 몇일간 머물면서 로비활동과 병행, 실질적 資料획득에 힘쓰도록 하는 方案이 모색되었음은 하는 것을 새로운 希望사항으로 제안 하면서 訪問記를 이어 보고자 한다。

◇91년 8월18일 맑음

오늘은 大望의 中國시찰 訪問 出發날이다。하늘은 한없이 맑아 蒼空飛行에는 최적의 날씨다。아침 9時에 出發豫定이던 KAL機가 제17차 世界잼버리大會 參加國會員의 귀국을 돕기 위한 잠정조치로 증발되어 午後 1時20分에야 金浦空港을 離陸 約3時間의 飛行끝에 4時30分頃에 香港이 8백m에 달하며 3分간격으로 비행기 한대가 뜨고 내리는 세계3大空港의 하나라고하며 선구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爲하여 붙혀진 이름으로 과연 그 웅장함을 자랑할만 하다。

香港의 첫인상은 영상에서 본것과 같은 수려한 것이 못되고 건물들은 石林처럼 우뚝우뚝하나 겉모양은 매우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였다、다이나스티旅行社·香港支社에서 나온 미쓰 채미영씨의하면 원체가 大陸根性으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며、外國觀光客에게 과시하는 마음가짐이 전혀없고、그대로의 모습을 보고가도 좋다는 만만디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國家經營과 人間社會의 通常的인 개념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가이드의 잘활한 안내말을 들으면서 香港이 자랑하는 제1해저터널과 유일한 人工造物인 万壽寺 佛教殿堂과 비교적 서늘한 해수욕장을 둘러 보았다。

우리들은 體温上으로는 서울보다 훨씬 무더위를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태풍8號가 지나간 탓인지 무척 시원해졌다 면서 모두들 감기에 조심하라는 당부에는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대충 외곽지대를 돌아보고 기회가 또 없을것 같아서 이곳 海上요람인 珍寶飯店에서 中國八珍요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最高로 有名한 저녁食事를 대접받고난후 明나라때 皇室服을 번갈아 입고 옛 中國皇室의 榮華를 잠시 감상하면서 人生榮辱의 無常함을 새삼 느끼기도 하였다。연이어 海上宮殿이라고 불리는 夜總會場을 찾아 잠시나마 여독을 풀었다。

이곳은 大形古船을 改造하여 3層에 야총회장을 만들어 世界各國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의 旅毒을 풀어준다는 술집이였다。日本、中國、韓國노래들을 계속 연주하면서 國籍不問平等으로 흥취를 유도하면서 한때나마 향락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갔다。우리협회 방문단一行이 主導하다 싶이된 장면들이 계속되고 좀 섭섭은 하였지만 세번째로 연주된 아리랑、돌아와요 釜山港、노란샤쓰의 사나이등이 가라오케와 함께 늦음세라 부지런히 준비를 서둘고 조반을 약속한 호텔2층 부페실로 모여들었다。건강한 모습들이다。나만은 약간의 현훈증세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旅路에 두려움과 不安을 남몰래 느끼고 있었다。하지만 마지막 旅行은 한국노래속에는 國籍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合唱도 하고 拍手도 치고 광란하여 外國에서의 본 한국붐을 실감나게 하였다。아울러 日本의 경제력이 生覺보다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향락장의 순서라고 하지만 어딤 中國노래 다음에는 日本의 最新流行노래이고 그 다음이 한국노래라는 것이다。맞은편 좌석에 자리잡은 日本팀 中에는 고성으로 돌아와요 釜山港을 合唱하는데는 다소나마 위로를 느꼈다。

휘황찬란한 香港夜景을 감상하면서 來日의 旅程을 爲하여 밤11時頃에 指定한 京港호텔로 돌아왔다。

◇91년 8월19일 맑음

香港의 첫날밤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꿈탑인지 모두들 일찍 침실을 찾아 들었다。짜여진 時間에 계획이 될지도 모를 귀중한 機會를 무산시킬수는 결코 없었다。6·25때의 그 처참하였던 追憶들을 되새기면서 비교적 口味에 맞는 부페음식으로 다음의 준비를 마치고 아침 8時30分(우리나라 時間은 9時30分、한시간 時差가 있다) 호텔를 出發 카이탁 空港으로 가는 途中 이곳에서 有名한 寶石商街및 교포가 경영하는 免稅店들을 살펴보고 교포 경영의 한국음식점에서(이화반점) 서울을 떠난지 불과 하루만인데도 불구하고 걸만난듯이 우리食單음식을 깡그리 먹어치웠다。앞으로 9日間 우리음식 먹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많이도 먹어 치웠다。참으로 身土不二란 말이 다시한번 實感났다。

이곳時間으로 오후 한시경에 카이탁空港에 도착、中國南部都市 雲南省首都 昆明市로 가는 中國南部航空사 소속 보잉727를 탑고 비교적 定時인 14時15分에 이륙 일로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恒常 만만디인 性格탓이랄까、한두시간 정도 지연출발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정시에 出發한다니 一行은 모두 서둘러야 했다。

막막창창한 하늘아래 광활한 大地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사이를 우리의 비행기는 유유히 날아갔다。이륙한지 한시간 45分만에 昆明비행장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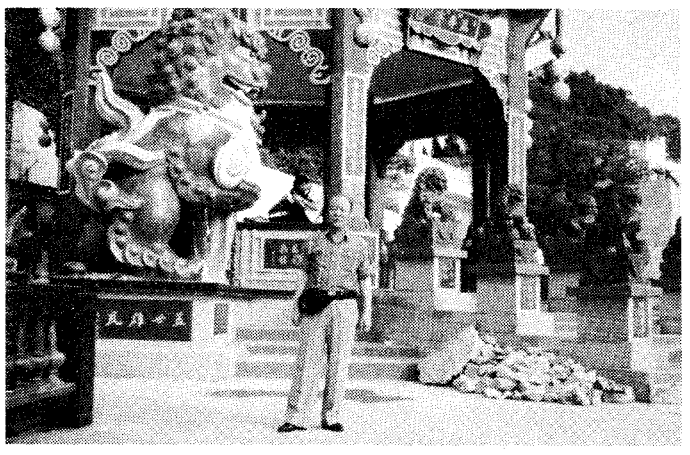
이곳의 첫인상은 초가을 날씨와 같은 시원하고 우리나라 시골 中小都市와 비슷한 규모였으나 大陸의 恨性처럼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이였다。휴사 월남의 시골풍경을 연상케 하였으며 사람들의 옷매무시는 매우 순수하고 조촐하고 自轉車가 서민 交通手段이라는 것도 흥사하여 과연 越南과 接境지대임을 느끼게 하였다。(필자는 66년말에서 68년3월까지 월남전 참전경험) 이곳 비행장에 도착후 다이나스티旅行社 支部에서 나온 漢族인 李君과 소위 鮮族이라는 北部延吉에서 파견된 미쓰朱(順子)의 안내를 받음으로서 이地方유서와 내력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雲南省은 全國에서 8번째 가는 南方首都이며 해발 6천6백m가 넘는 메이리카雪山을 背景으로하여 해발 1천8백74m에 위치한 昆明市는 3百50万의 人口를 포용하고 省全體에는 3천6百万余의 人口가 農業을 위주로하여 살고 있다。(1개省의 人口가 우리나라 全體人口보다 약간적다) 氣候는 最高섭씨25°가량으로 한겨울에도 눈을 보기가 어렵고 中國에서 가장 살기좋은 温帶地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이곳을 찾으면 回歸를 싫어하여 移舍는 못하지만 流動人口는 점차 불어나고 있다한다。

음식은 비교적 맵고 맛이 있는 쪽이였다。來日은 우리와 미리 約束된 大望의 植物研究所및 雲南省 藥材公司(漢方製藥會社)를 訪問하는 날이다。

◇91년8월20일 맑음

香港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時間差는 같지만 아침예약時間 7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이다。

8시에 양식레스토랑에 모여 산뜻한 아침食事를 마치고 鮮族이지만 中國사람인 가이드 미쓰朱의 안내를 받으며(미스朱는 中國延吉에서 태어난 韓國二世이며 父母任의 고향은 慶北이라고 하나 어느郡인지는 모르고 있었다。하지만 中國語、韓國語、日本語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22才의 선발과 견된 美女였다) 예정된 이곳 雲南省科學院內의 植物研究所를 찾았다。이 研究所는 國營이며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고는 하나 所內에서의 行動에 조금도 不便함이 없었고 生産課長의 說明에 依하면 中國全體에 2만7천余種의 植物이 서식하고 있는 중 1만3천여종이 雲南省에서 自然또는 栽培되고 있으며 이중 藥用植物 3천여종이、그중에서 6백여종을 이 研究所에서 栽培開發中에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놀촌진흥청에서와 같이 질서정연하고 端正한 管理상태는 아니라고 하나、그런데로 藥用(藥用) 非藥用의 온갖 植物들이 또는 처음보는 식물들이 栽培管理되고 있는 광경은 정말 놀랄만한 하였다。우리一行은 하나라도 놀침세라 관리소 生産課長의 說明을 들었고 또 질문을 하기도 했다。간혹 처음보는 약초들에 대하여 種子들을 조금씩 요구해보았으나 國家관리상 직접공급은 不可能하다고 하므로 相當한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特히 三七根(또는 田七根)、파극、冬虫夏草등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午後見學코스인 藥材公司를 訪問하게 되면 加工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루어 버리는 것이었다。이곳 案內者에는 이미 다음 訪問地인 藥材公司에서 담당責任者가 수행하고 있었다。



◇홍콩 유일의 萬壽寺 千世門에서

◇ 약용식물원에서 (8. 20일)

◇ 약용식물원에서 (8. 20일)